제4강 영원회귀-창세의 반복: 제논, 엘리아데, 니체 Ⅱ

(1교시)

그런데 지나간 속된 시간의 폐지는 일종의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여러 의례들을 통해 실현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내용들은 대체로 인간의 삶을 통해 정착된 각종 관행들을 일순간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코스모스에서 카오스에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을 끄는 것, 죽은 자의 혼의 귀환, 사투르날리아제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혼란, 성애(性愛)의 자유, 오르지(痛飮亂舞) 등은 모두 코스모스의 카오스에로의 되돌아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해의 마지막 날에 우주는 원초적인 물 가운데로 융해되었다. 어두움, 형태가 없는 것,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바다의 괴물 티아마트가 부활하여 다시 위험을 가한다. 일년 동안 존재했던 세계는 실제로 소멸하였다. 티아마트가 다시 출현했기 때문에 우주는 소멸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르두크는 티아마트를 다시 한 번 정복한 후에야 그것을 다시 한 번 창조하게 되었다."(같은 책, 96쪽)

엘리아데는 매년 반복되는 코스모스의 카오스에로의 복귀 그리고 카오스로부터 새로운 코스모스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은 신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재현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신성한 존재가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물론 신들이 의례를 통해 인간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신과 인간의 뒤섞임을 봅니다. "축제에서 생명의 성스러운 차원이 회복되고, 그 참여자들은 신의 창조물로서 인간 존재의 신성성을 체험한다."(같은 책, 103쪽) 니체가 디오뉘소스 극을 사튀로스 극이라 말하면서 사튀로스로 분장한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관객들이 모두 스스로 사튀로스가 된다고 여긴다고 말하는 것은 허투로 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고대인들의 축제의 정신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겠습니다.

문제는 카오스로 되돌아가는 것을 인간들이 직접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카오스가 도래하는 시간은 분명 신성한 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흔히 디오뉘소스적이라 일컫기도 하는 통음난무와 난교 등입니다. 오늘날 문명의 세속적 시간에서 보면 타락한 것으로 여겨지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열정적이고 무질서한 에너지의 분출이 고대인들에게는 도리어 신성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남신과 여신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비시간적인 순간, 영원한 현재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인간의 결합은—의례적 결합이 아닐 때—속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같은 책, 103쪽) 제우스의 바람기 넘치는 열정적인 간음이 떠오릅니다. 우주의 창조와 성적인 에너지의 분출의 연결, 프로이트가 원초적인 본능인 리비도를 강조한 것이 떠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세속적 시간의 질서는 신성한 시간의 무질서보다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엘리아데는 신성한 시간을 '영원한 현재'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의 역설들에서 우리는 '영원한 정지'의 역설을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닮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데가 고대인들의 의례들에서 말한 '영원한 현재'는 우주적 창조의 에너지가 무질서하게 과잉하면서 흘러넘치는 역동적인 시간입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영원은 일체의 내용이 사상되어버린 추상의 극치입니다만, 오히려 엘리아데가 말하는 영원은 일체의 내용들이 뒤범벅되어 흘러넘치는 구체(con-cretness)의 극치입니다.

www.artnstudy.com

코스모스는 카오스를 자르고 나누는 데서 성립합니다. 엘리아데가 말하는 영원한 현재는 세속적인 코스모스를 파괴하고 카오스를 재현함으로써 세속적인 코스모스의 기원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실용적으로는 그럼으로써 전혀 새로운 세속적인 코스모스를 건립하고 그 안에서 신선한 만물의 존재와 더불어 스스로의 신선한 존재를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디오뉘소스 축제에서 여자들이 짐짓 미쳐버린 상태에서 살아있는 황소를 뜯어먹음으로써 스스로 디오뉘소스적인 활기찬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엘리아데는 카오스적인 상태를 그저 이러한 방탕과만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결혼, 성적인 방종, 죄의 고백을 통한 집단의 정화, 희생양의 추방, 새로운 수확의 축성, 여호와의 즉위, '죽음'을 물리친 여호와의 승리에 대한 추념,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방대한 의례 체계를 구성하는 계기들이었다. 이런 삽화적인 요소들이 지니는 양가성과 양극성(금식과 방탕, 비탄과 기쁨, 절망과 오르지 등)은 그 의례 체계 안에서 그것들이 갖는 상보적인 기능을 확인시켜 준다."(『영원회귀의 신화』, 71쪽)

엘리아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의례적인 노력을 역사에 대한 저항이라고 정의합니다. "고대의 인류는 역사가 내포하고 있는 온갖 새로운 것과 비가역적인 것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방어하였다."(같은 책, 60쪽) 흔히 시간을 비가역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세속적인 역사적 시간에 대한 것이고, 고대인들의 신성한 시간, 즉 영원한 현재에 대한 숭배로 볼라치면 결코 시간은 비가역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시기의 끝과 시작에 대한 관념이 도처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관념이 생명 우주적인 리듬의 관찰에 근거해 있으며 좀 더 폭넓은 하나의 체계 즉 삶의 주기적인 정화(새로운 수확물을 소비할 때 행하는 속죄, 금식, 죄의 고백 따위를 예로 들 수 있다.)와 재생의 체계에 맞추어 있다는 사실이다. (…) 시간의 주기적인 갱신이 상당히 명백한 형태로, 특히 역사적인 문화들 속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창조' 즉 우주 창초 행위의 반복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인 창조, 시간의 순환적인 갱신이라는 관념은 '역사'의 폐기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같은 책, 63쪽)

영원한 현재와 시간적인 역사의 대립 구도에서 영원한 현재가 시간적인 역사를 패퇴시킴으로써 시간적인 역사가 갖는 소모성과 폭력성이 극복된다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엘리아데가 영원한 현재에 의한 역사의 폐기 대신에 메시아적인 미래에 의해 역사가 폐기되는 것으로 대체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모세의 일신교적인 유태교의 역사관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역사관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유태-그리스도교적인 직선적 · 진보적 시간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재론도록 하겠습니다.

2) 엘리아데의 영원한 현재와 수직적 시간의 설립

소모되는 삶의 여정, 늙음을 통해 급기야 죽음을 통해 완결되는 생명 에너지의 소모의 여정. 이 여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무와 무의미가 소용돌이치면서 삶을 곤두박질치게 만듭니다.

엘리아데가 소개 · 정리하고 있는 고대인들의 우주 창조의 영원회귀 내지는 영원한 주기적인 반복은 세속적으로 살아온 만큼 죽어버린 삶을 폐기하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살아나는 탄생의 반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늘 죽는다고 말합니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인간은 늘 되살아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한 해라고 하는 강력한 주기적인 죽음과 부활의 순환을 우주 창조의 무한정한 반복의 순환의 상징이자

www.artnstudy.com

현실로 여깁니다.

이미 우리는 문명사적인 흐름 속에서 낮과 밤의 순환을 상실했고, 지나간 해와 다가오는 해의 순환을 상실했습니다. 엘리아데의 말을 원용하면,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우주 창조의 신화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남아 있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이 관철되는 인간의 삶뿐인 양 되고 말았습니다. 생산물은 넘쳐 나지만, 그 생산물에 담긴 전 우주적인 의미는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들의 세계는 만물이 새롭게 갱신되는 새해와 봄의 축성(祝聖)이었고, 그러한 축성은 카오스적인 에너지의 발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날아와 어린 다 빈치의 입을 열고 꼬리를 집어넣듯이, 굳게 닫혀버린 시간의 입을 열고 그 속으로 하강해 들어오는 충동적 에너지로 과잉하는 영원한 현재야말로 우리의 시간을 수직으로 곧추서게 만드는 원초적인 힘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속적 시간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시간을 수직으로 곧추세워 빛나게 하는 것이 영원한 현재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성과 속이라는 엘리아데적인 이분법적인 접근으로서는 아직 세속적이라 일컬어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근원적으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속적 시간은 순간순간 이미 영원한 현재의 현현이며, 영원한 현재는 세속적 시간이 수직으로 곧추세워짐으로써 성립하는 시간이라 달리 말하고 싶어집니다. 차라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어 세속적 시간은 신성한 영원한 현재의 가능태이고 신성한 영원한 현재는 세속적 시간의 현실태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순간 속에서 우주 창조의 주기적 순환을 목도하고 싶고, 매 순간이 수직으로 서 있는 날카로운 시간의 응축이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헤겔의 말처럼 폐기는 보존과 변증법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기는 완전한 부정이나 절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변용의 계기를 한껏 품고 있는 것이라 해야 합니다.

일체의 시간적 계기들을 응축시키되 파르메니데스나 제논처럼 추상적인 영원한 정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아데적인 존재 과잉의 응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카오스적인 폭발을 날카로운 수직의 선을 내달리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술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예술로 나아가는 지점은 폐기에서 지양으로, 이분법적 분리로부터 응축과 폭발의 연속성의 논리로써 상호교환의 끼아즘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지점일 것입니다.

(2교시)

3. 니체의 영원회귀의 시간

엘리아데가 영원회귀의 신화를 추적해서 드러내게 된 까닭이 니체(1844-1900)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영원회귀(영겁회귀라고 주로 번역되지요)를 철학적인 개념으로 정착시킨 인물이 바로 니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겁회귀에 대해 니체가 직접 하는 이야기를 되새길 만한 여유가 없어 다시 소광희 교수님의 연구에 의존합니다.

니체의 영겁회귀의 사상은 앞서 우리가 잠시 언급한 역사적 시간의 보편적인 소모성과 그

www.artnstudy.com

로 인한 허무주의의 극복을 위한 것입니다. 소광희 교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대목을 재인용해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체가 제 힘을 시험하는 시간은 무한하다. 즉 힘은 영원히 동일하고 영원히 활동하고 있다.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미 무한히 흘러왔거니와 그것은 모든 가능한 전개가 이미 거기 현존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순간적인 발전은 회귀라야 하고, 그리하여 그 발전이 잉태하고 [발전의] 전개에서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나 뒤로 회귀한다! 일체는 무한 횟수를 거쳐 현존해 있다. —일체의 힘의 총체가 언제나 회귀하는 한.”(소광희, 65쪽)

니체의 영겁회귀는 엘리아데가 말하는 고대인들의 우주 창조의 영원반복을 넘어서버립니다. 니체의 영겁회귀의 사상에 비추어 보면, 우주 창조 역시 더 거대한 영겁회귀의 한 사건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구상하는 세계(존재)는 창조주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닌 만큼 근원도 목표도 없이 매 순간마다 시작과 끝이 동시에 회귀하는 항구적 운동을 계속한다.”(소광희, 64쪽) 무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 니체의 영겁회귀의 사상에 깔려 있습니다. 무는 신의 모태인 셈이기에,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에는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허무주의에 가깝습니다. 영겁회귀할 뿐인 존재 자체의 거대한 욕망만을 목도하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허무주의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힘의 영겁회귀를, 그 힘이 순간적인 발전을 통해 일어나는 영겁회귀를 말합니다. 니체의 허무주의가 무를 거부하고 신을 부정하는 데서 성립한다고 한다면, 그 허무주의는 철저히 존재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순환과 반복이라는 말에 배어 있는 말 그대로 허무주의적인 권태를 지워버립니다. 권태는 무가 존재를 침범해 들어와 힘을 박탈해 갈 때 생깁니다. 니체의 눈으로 볼 때, 신은 권태를 심어놓는 무를 위장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힘에의 의지’(권력의지 Wille zur Macht)는 근원적으로 영겁회귀하는 존재의 힘을 통해 무와 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배의 화신은 디오뉘소스인 것이고요. “ ‘모든 신들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일찍이 위대한 정오에서 우리의 마지막 의지이다.”라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서 말한 까닭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정오’라고 하는 특이한 시각이 ‘위대한’이라는 관형어로 강조됩니다. ‘위대한 정오’는 영겁회귀가 응축되는 순간입니다. “인식의 태양은 다시 한 번 정오에 섰다. 그 빛 속에서 영원의 뱀이 선회하고 있다. - 이것은 그대들의 시간, 그대들은 정오의 형제들!”(소광희, 59쪽에서 재인용) 영원의 뱀이 선회하는 시각인 정오. 정오는 태양이 가장 활기차게 에너지를 발하는 정점입니다. 오전과 오후의 분기점, 뒤로의 영원과 앞으로의 영원이 만나고 겹치는 지점, 그러한 정오는 다름 아니라 영겁회귀의 무한 반복의 시간이 극적으로 응축되는 순간입니다. 순간과 무한 반복의 영겁회귀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니체의 사유는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수직으로 선 시간을 극적으로 잡아채고 있습니다. ‘정오의 형제들’은 그러니까 순간에서 무한 반복으로 영겁회귀하는 존재의 힘을 잡아챌 줄 아는 인간들이겠습니다. 개별과 보편의 결합을 말할 수조차 없는, 생성과 보편적 존재의 결합을 미처 말할 수조차 없는 무한히 뜨거운 존재 응축의 순간을 몸 전체로 느끼면서 그 속에 자기의 궤도를 휘몰아 넣을 줄 아는 인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역시 영겁회귀하는 궤도 속으로 돌입할 줄 아는 인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인간은 영원히 회귀한다! 작은 인간은 영원히 회귀한다. / 너는 거대한 생성의 해바퀴, 거대한 해바퀴의 괴물이 있다고, 그리고 그 해바퀴는 모래시계와 같이 언제나 새롭게 흘러가고 흘러오

www.artnstudy.com

기 위하여 새롭게 회귀한다고 교설한다. / 나의 집은 어디 있는가? 나는 그것을 찾아보았고, 지금도 묻고 찾아 헤매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오! 영원한 도처(到處), 오! 영원한 무도처(無到處, Nigendwo), 오! 영원한 무모."(소광희, 57쪽에서 재인용) 그리고 역시 같은 책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정오에서 인간은 자기 궤도의 중간 - 동물과 초인 -에 서고, 석양으로 기우는 진로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나니,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여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 그때 몰락하는 자(der Untergehend)는 자기가 상승하는 자(der Hinübergehend)이겠기에 십자를 긋는다. 자기의 인식의 태양은 정오에 서는 것이다. / '모든 신들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일찍이 위대한 정오에서 우리의 마지막 의지이다."(소광희, 59쪽에서 재인용)

엘리아데가 말한 고대인들의 의례들은 바로 니체가 말하는 정오의 구체적인 펼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거꾸로 니체가 말하는 정오는 고대인들이 의례를 통해 체험하고자 한 우주 창조의 영원한 현재를 극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창조의 영원한 현재를 정오와 동일시할 경우, 그리고 정오가 서로 꼬리를 무는 과거의 영원과 미래의 영원을 응축한 것이라고 볼 경우, 고대인들의 우주 창조의 영원한 현재는 창조 전의 카오스적인 영원과 창조 후의 코스모스적인 영원이 서로 꼬리를 물면서 회귀하는 것이라 달리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순간에 이루어지는 영겁회귀, 영겁회귀할 정도로 무한정한 존재의 힘, 순간에 응축되는 무한정한 존재의 힘, 니체의 영겁회귀의 사상은 섬뜩할 정도로 강인합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영원한 정지를 지닌 존재가 니체에게서는 영겁회귀의 무한정한 존재의 힘을 응축시킨 순간으로 돌변합니다.

니체는 인간은 영겁회귀에 있어서 한 획의 수정도 없이 그 삶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과제는 '네가 다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원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윤회설 같은 것을 강조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한 점 수정도 없이 똑같이 반복되는 또 한 번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의지는 바로 영겁회귀하는 존재의 힘을 체화하여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발휘될 것입니다. 순간에 이루어지는 영겁회귀, 순간에 이루어지는 무한히 반복되는 똑같은 삶의 응축, 그러한 응축의 삶을 한 획의 수정도 없이 다시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의무라는 이야깁니다.

존재의 영겁회귀의 바퀴와 인간의 영겁회귀의 바퀴가 맞물리면서 응축된 순간이야말로 수직으로 선 시간의 가장 거대한 모습일 것입니다.

www.artnstudy.com